

방어기제 관점으로 본  
페미니즘 작가 자화상의 자아치유 요인 연구  
- 프리다 칼로(Frida Kahlo)와 천경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

A study of Feminist Artists' self-portrait paintings  
on defense mechanism of self-healing elements  
- Emphasis on Frida Kahlo and Chun Kyung Ja's paintings -

정영인

한양대 응용미술학과

**Chung, Young-In**

Hanyang university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2. 연구방법 및 범위

## 2. 이론적 배경

- 2-1. 방어기제
  - 2-1-1. 방어기제
  - 2-1-2. 방어기제의 종류
- 2-2. 자화상
  - 2-2-1. 페미니즘 작가의 자화상
  - 2-2-2. 치료적 의미의 자화상
- 2-3. 프리다 칼로와 천경자
  - 2-3-1. 개인적 삶의 변화과정
  - 2-3-2. 고통속의 자화상 작업과정

## 3. 방어기제 관점으로 본 프리다 칼로와 천경자의 자화상에 내재된 자아치유 요인

- 3-1. 상징화
- 3-2. 전환 : 정신적 고통을 육체로 표출
- 3-3. 승화 : 죽음에서 삶으로

## 4. 결론

### 참고문헌

### 논문 요약

동서고금을 막론한 많은 화가들이 자화상을 그려 온 것은 인간에게 자기표현의 욕구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자화상은 자신의 모습을 깨우치는 계기를 제공하고, 정신적 고통이나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다양한 방어기제를 자신 모습 속에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는 페미니즘 작가인 프리다 칼로와 천경자의 자화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방어기제인 상징화(symbolization), 전환(conversion), 승화(sublimation)를 중심으로 작품을 비교·분석하고 자아치유의 매개체였음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작가는 우울과 불안, 순탄치 못한 결혼 생활로 힘겨워하였고, 이러한 심리적 고통을 유난히 많이 그린 자신의 자화상으로 표현하여 치유하려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전통 의상, 동물, 꽃, 뱀 등을 반복적으로 자화상에 그려 넣음으로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상징(symbolization)의 의미를 끌어내어 치유적인 효과를 창출하였다. 또한 정신적 고통을 자신의 육체로 전환(conversion)시켜 표현하였으며, 죽음에 대한 유희와 고난을 그림으로 승화(sublimation)시켜 치유하려고 노력하였다.

미술의 창작과정을 통한 치유의 요인들은 미술치료 사례를 통하여 많은 연구가 되어 지고 있는 반면, 화가들의 창작과정 속의 자아치유적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라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화가들의 독특한 기법과 다양한 재료 등을 이용하여 자화상 그리기뿐만 아니라 미술치료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주제어

방어기제, 자화상, 자아치유, 프리다 칼로, 천경자

### Abstract

Many artists from every part of the world demonstrate how human beings are eager to express their feelings through their self-portraits. Creating a self-portrait generates more positive outputs than just giving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mselves. It alleviates one's hurtful feelings building such a powerful defense mechanism while working on their artworks.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contrast two feminist artists' self-portraits -Frida Kahlo and Chun Kyung Ja- to conclude that their art works are used as a tool for the self-healing. Their main themes in their artworks are defense mechanism - symbolization, conversion, and

sublimation.

Both artists were depressed with the pain of unhappy marriage life. This fact is commonly expressed in their self-portrait to overcome their spiritual scars. The main characters that they introduced frequently are flowers, butterflies, and snakes such animals. By painting those characters repeatedly, it cures their pain inside by symbolizing their unconscious pain to conscious meaningful self-healing. Whenever they feel the pain inside, they covert the pain in action by drawing as many self-portraits as they can. There are many drawings that expressed many thoughts about the agony and temptation of death. They put effort to sublime the pain through the paintings.

There are many studies about art therapy being observed using art works as cure remedy as an example, however, it is very rare to introduce art therapy being observed as self cure composite through artists' creative art works. Thus, I strongly suggest looking into developing a program using art therapy in whole not only for artists' self-portrait skills.

### Keyword

defense mechanism, Self-portrait, self-healing, Frida Kahlo, Chun Kyung Ja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술사에서 여러 화가들은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왔고 그런 자화상은 단순히 그린 사람의 외형적인 실제의 모습을 뛰어 넘어 화가를 둘러싼 환경과 삶의 방식, 성격과 내적 심리 상태까지도 추측하게 한다. 그림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상들을 분석하는 것은 작품을 제작한 작가의 사고나 감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림을 진단하고 해석하는 미술치료 과정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sup>1)</sup> 특히 불완전한 결혼생활과 심리적인 고통을 많이 겪어 온 페미니즘 작가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자화상은 어떤 의미로 해석되며,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의 작업이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세계적인 페미니즘 작가 프리다 칼로와 우리나라

의 대표적인 페미니즘 작가 천경자의 그림은 주제와 화풍이 많이 닮아 있다. 이 둘은 자신을 주제로 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으며, 특히 프리다는 자신의 그림 중 1/3 정도가 자화상이다. 천경자 역시 여인을 주로 그렸는데 대부분 자기 자신을 모델로 그렸다. 뿐만 아니라 두 작가는 시련과 고통이 많았던 삶의 모습도 닮아 있다. 2006년 천경자 전시에서 그녀의 소장품들도 함께 전시되었는데 그 중 프리다 칼로의 도록과 그림엽서들이 다수 있었다. 이는 프리다에 대한 천경자의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렇듯 비슷한 점이 많은 두 여성 작가의 자화상에서 그녀들의 정신적 고통이 잠시나마 쉴 수 있었던 자아치유 요인을 방어기제 관점에서 살펴보고, 심리적인 치유요인을 찾는 데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가진다.

##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페미니즘 작가 프리다 칼로와 천경자의 자화상에 내재된 자아치유적인 요인을 방어기제 관점으로 살펴보려 한다.

먼저 이론적 배경으로 방어기제의 개념과 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페미니즘 작가에게 있어 자화상의 의미와 그 치료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프리다 칼로와 천경자의 개인적 삶의 변화과정을 통해 고통 속에서의 자화상 작업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녀들의 자화상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방어기제의 주요 개념인 상징화, 전환, 승화 세 가지로 나누어 자아치유 요인을 밝혀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 연구자들의 저서와 논문, 학술지 등과 주제에 부합되는 심리학서적과 외국 서적, 인터넷 자료 등을 근거로 자아치유 요인을 분석하고, 연구자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방어기제

#### 2-1-1. 방어기제의 개념

인간은 불안이 지속되고 강하면 자아가 불안을 감소시키려고 내적, 외적 현실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려는 시도를 한다. 충동이나 주위환경의 요구에 비현실적 방식으로 대처할 때 다양한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애정대상의 상실, 초자아의 비난과 같은 위협하고 불쾌한 정동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자아의 분투이다.<sup>2)</sup>

1) 유미, <미술작품 속에 보이는 자아방어기제-천경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임상미술치료학연구, 대한임상미술치료학회, 2007.5, p.5

방어기제는 1894년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논문 <방어의 신경정신학>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어졌고, 그의 딸 안나 프로이트(Anna Freud)에 의해 체계적으로 수립된 이론이다. 이는 갈등의 원천을 왜곡하거나 대체, 차단하고 이는 무의식적으로 채택되며 대부분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방어기제가 동원된다.

방어기제는 불안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는 정신분석적 미술치료의 과정 중에 나타나는 중요한 역할이 된다. 긍정적이고 자기 치유적인 과정을 가지고 있지만, 방어기제의 과도한 사용은 다른 자아기능을 발달시키지 못하도록 정신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심각한 심리적 문제가 야기되기도 한다. 또한 자기 통찰을 통해서 바뀌질 수 있으며, 치료가 되어가는 중에 겪게 되는 심리적인 불안과 치료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 진다.

### 2-1-2. 주요 방어기제의 종류

[표 1] 방어기제

방어기제	내용
상징화 symbolization	어떤사람이나 사물에 부착된 감정적 가치를 어떤 상징적 표현으로 전치시키는 것
전환 conversion	불안을 감추기 위해 개인의 강한 정신적 갈등이 신체적 증상으로 표출되는 것
승화 sublimation	본능적 욕구나 참기 어려운 에너지를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형태로 돌려쓰는 것
내사 introjection	타인의 가치나 기준을 받아들이고 삼키는 것
억압 repression	의식에서 용납하기 힘든 생각, 욕망, 충동들을 무의식 속으로 눌러 버리는 것
억제 suppression	의식적 혹은 반의식적으로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
투사 projection	받아들일 수 없는 욕망이나 충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귀인시키는 것
회피 avoidance	위험한 상황이나 대상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것
퇴행 regression	심한 좌절 시 현재보다 유치한 과거 수준으로 후퇴하는 것
합리화 rationalization	상처 입은 자아를 설명하기 위해 타당한 이유들을 조작하여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
백일몽 day dream	fantasy라고 함. 현실에서 이를 수 없는 소망을 상상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동일시 identification	부모, 윗사람 등 중요한 인물들의 태도와 행동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닮는 것
분리 splitting	자기와 남들의 이미지, 태도가 전적으로 좋은것, 나쁜것 상반된 것으로 나뉘는 것

### 2-2. 자화상

자화상은 화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의 조형 양식의 특성을 말해주기도 하고, 화가들이 자신을 어

2) 미국 정신분석학회, 이재훈 외 옮김(2002) : 정신분석용어사전, 한국심리치료연구소, p. 143-144

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의식 표출의 장르이기도 하다.<sup>3)</sup>

시대나 화가 개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자화상 제작에는 자기에 대한 관심, 자기에 그리고 자기정체성의 규명에 대한 열의와 집착이 중요한 동기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sup>4)</sup>

#### 2-2-1. 페미니즘 작가의 자화상

조안 스나이더는 여성화가가 남성화가에 비해 자화상을 많이 그린다고 말했다. 남성이 주체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옮길 때 여성은 자기 자신의 내적 심리를 표현하는데 열중한다. 페미니즘 대표작가 프리다 칼로와 천경자는 여성의 심리를 자신의 화법으로 솔직하게 전한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고통과 상처가 없지 않겠지만, 이 두 여성화가의 그림은 처연한 고통과 자아가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표현되었다. 이렇게라도 그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을 그녀들의 삶의 고뇌와 그림을 그리면서 느꼈을 해방감이 그녀들의 그림에 담겨 있다.<sup>5)</sup>

페미니즘 작가들은 여성적인 특성을 여성적 유형으로 규정지으며 폄하하는 편견에 맞서 남성과 다른 신체성과 자아인식을 강조하며 고유한 감수성을 강조하고 여성을 정치화하는 새로운 미술을 탄생시켰다.<sup>6)</sup> 페미니즘 작가들은 남성적인 표현 방법을 답습하지 않고, 여성에 맞는 새로운 언어를 자신의 자화상이나 삶을 통해 마치 자서전과 같이 표현하였다.

#### 2-2-2 치료적 의미의 자화상

자화상 표현은 애정으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감싸 안을 수 있고 내면의 불일치를 자기애로 치환시켜 '존재(存'在)'와 '자아(自我)'에 대한 탐색과 자신을 객관적인 대상으로 분리한다. 또한 주관성을 가지고 그 대상을 보게 하여 감정의 승화작용을 일으키는 자기표현을 목적으로 한다. 자화상 표현은 객관적 대상으로 분리된 자기(自己)가 긍정적일 때는 새로운 자기 발견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부정적 모습일 때는 순화시켜 자기연민을 갖게 하여 카타르시스(catharsis)를 맞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sup>7)</sup>

화가의 자화상 작업에서만이 아니라 미술치료에서

3) 조선미, <화가와 자화상>, 서울:예경, 1995

4) 오선미, <성인미술치료의 자화상에 나타난 불균형 조형감각에 관한 연구>, 원광대 대학원, 2008, p.20

5) <http://blog.naver.com/eh660707?Redirect=Log&logNo=70034941071>

6) 정재아, <페미니즘적 특성을 이용한 자화상 표현 연구 : 여성 2학년 을 중심으로>, 국민대 교육대학원, 2006, p.25

7) 오선미, <성인미술치료의 자화상에 나타난 불균형 조형감각에 관한 연구>, 원광대 대학원, 2008, p.21

의 자화상 그리기는 자신을 탐색하도록 돕고 자기의 심리적 상태 표출과 경험, 가치관을 작품에 작용하여 욕구와 관심, 생활상, 갈등 등이 반영되도록 한다. 그리하여 자기의 정신세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도와 생활문제를 해결과 자기관리능력을 습득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켜주고 자아개념을 증진시켜 줄 수 있다.

자화상 그리기를 통한 자기표현은 표현의 매개체가 자기 자신이므로 표현 자체에도 진지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자신과의 교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비추어 자화상 그리기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기회가 많아지리라 보고, 그 결과 미술적 자기표현 능력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8)

### 2-3. 프리다 칼로와 천경자

#### 2-3-1. 개인적 삶의 변화과정

프리다 칼로와 천경자는 당시 예술가와 교수라는 직분의 여성이 많지 않던 시절 신여성으로서 유명한 명성을 가졌던 반면, 정신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프리다는 18세에 타고 가던 버스와 전동차의 충돌 사고로 32번이 넘는 외과수술을 받게 되었고 20살 연상의 유명한 예술가 디에고 리베라의 세 번째 부인이 되었으나 세 번의 유산, 7번의 척추 수술, 발가락 절단수술 등의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 또한 남편과 자신의 여동생의 연애 사건과 수많은 외도 등으로 47세 사망 전까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칼로는 자기 자신의 육체적 현실과 그 현실의 자각을 탐구하는 수단으로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많은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천경자 역시 순탄치 못한 삶으로 첫 번째 남편과 결혼과 동시에 별거생활을 하였고, 두 번째 남편은 가정이 있는 유부남으로 20년간이나 동거할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 불안과 고통, 갈등을 많이 겪었다. 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지 시대와 6.25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사회적 변화와 20년간 교수로 재직하던 홍익대학교를 떠나 남태평양, 유럽, 남아메리카 등지를 돌며 작품 활동을 하였다.

또한 수필가로도 이름을 알린 천경자는 아이 넷을 혼자 기르는 불안정한 가정생활에서 겪는 기다림과 외로움이 수많은 수필집과 작품에 애달프게 그려졌다.

8) 소창애, <자기표현을 위한 자화상 그리기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1997, 정혜민, <자화상 그리기가 자폐성 아동의 미술적 자기표현 능력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 대학원, 2006, p.10, 재인용

[표 2] 프리다 칼로와 천경자의 연보

	프리다 칼로(1907~1954)	천경자(1924~)
		
출생	-멕시코 출생 -4녀 중 3째 -어머니의 우울증으로 유모에 의해 키워졌으나 아버지 사랑 받고 성장	-전남 고흥 출생 -1남 2녀 중 장녀 (본명-천옥자) -조부모와 모친으로부터 예민한 감수성 물려받음
성장기	-1913년(6세)척추성 소아마비로 오른쪽 다리 불구 -1922년(15세) 국립예비학교 입학(의대지망생) -1925년(18세) 전차충돌사고로 척추와 허리, 발, 어깨, 골반뼈에 심한 중상을 입어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다.	-1941년(17세)지금의 전남 여고를 졸업하고 의대에 진학하라는 부친의 권고를 뿌리치고,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에 유학. 이때부터 스스로 '경자'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
성인기 & 노년기	-1926년(19세)병상에 있는 프리다를 위해 가족들은 침대천장에 거울을 달아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됨 (자화상을 그리게 됨) -1929년(22세) 멕시코의 유명한 예술가 디에고 리베라(42세)의 세 번째 부인으로 결혼 -1930년(23세)첫 번째 유산 -1932년(25세)두 번째 유산, 어머니사망으로 인한 우울증 -1934년(27세) 오른쪽 다리수술과 발가락을 잘라낸다. 세 번째 유산 -1935년(28세)남편과 자신의 여동생의 연애사건으로 인한 별거 -1939년(32세)이혼 -1940년(33세)다시 재결합 -1942년(35세) '라 에스메랄다'미술학교 교수로 선임 -1950년(43세) 17번의 척추수술 -1954년(47세) 4월 자살 시도. 7월 13일 폐렴으로 사망	-1944년(20세)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 졸업. 귀국 후 동경제국대학 유학생과 결혼(신혼 초부터 별거생활) -1945년(21세) 장녀 혜선 태어남 -1946년(22세)전남여고 미술교사 재직 -1949년(25세)조선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재직. 둘째 남편 태어남 -1952년(28세)<생태>를 포함한 개인전 성황. -1954년(30세) 홍익대 미대 동양화와 교수로 초빙. 신문기자였던 두 번째 남편(유부남)과의 사이에서 3째 정희 태어남. -1957년(33세)막내 종우 태어남 -1974년(50세)20년간 재직했던 교수직을 사임. 해외스케치 여행 등 작품 제작 -1991년(67세) <미인도>위작사건으로 인한 절필 선언 -1998년(74세)뉴욕으로 이주. 서울시립에 자신의 작품 93점 기증 -2003년(79세)뇌일혈과 치매로 현재 뉴욕에서 투병

#### 2-3-2. 고통 속의 자화상 작업과정

프리다 칼로는 정신적 고통 외에도 반복된 수술과 유산으로 인한 심한 육체적 고통으로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때문에 이동성 있는 물감 종류가 다루기 쉬운 매체였기에 주로 드로잉과 회화를 통해 작품 활동을 했다. 천경자 역시 평면적인 드로

인과 회화를 주로 다루었고, 두 작가 모두 자신의 모습을 주제로 많은 그림을 그린 공통점이 있다.

병실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프리다[그림 1]는 자연스럽게도 이때부터 자기관찰의 주된 대상이 된다. 그녀는 스스로가 “나는 항상 혼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잘 아는 주제인 자화상을 그린다.”라고 했듯이 최초의 소재는 병석에서도 그릴 수 있는 것들로 친구들과 가족과 자신의 자화상이었다.<sup>9)</sup> 자신의 집념이나 열정, 여인으로서의 삶을 그대로 화폭에 담아내는 리얼리티 산물의 일환으로 자화상을 그려내었다. 프리다는 자화상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나의 소재는 언제나 나의 감각, 나의 정신상태, 그리고 삶이 내 안에서 만들어 내는 심오한 반응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자화상 속에서 객관화했다. 자화상은 내가 나의 내부와 외부에서 느끼는 것들을 표현하는 가장 정직하고 현실적인 수단이었다.”<sup>10)</sup>*



[그림 1] 프리다 칼로 병상에서의 작품 활동



[그림 2] 천경자 작품 활동 모습

또한 천경자의 작품은 1970년대 이후 자화상으로 보이는 여인이 많이 등장한다. 모두들 짙은 화장과 화려한 꽃, 나비 등 아름답게 화면을 메우고 있다. 하지만 이런 외관적인 화려함 이면에는 오히려 어두움과 표정의 섬뜩함으로 모순된 느낌이 공존하고 있다.

*“그림은 과거의 추억을 되살리고 미래의 세계를 상상하며 오늘의 꿈을 담은 한 폭의 드라마들이다. 그 속엔 내 슬픈 생애의 단면들이 숨 쉬고 있다. 화사한 보랏빛 행복과 꿈을 머금은 꽃, 상상의 나래를 펴는 나비가 있지만 그 밑을 흐르는 것은 여인의 진한 한(恨)이다. 그래서 여인의 눈동자는 무섭기조차 하다.”<sup>11)</sup>*

그녀의 수필집에서 스스로 전생에 황녀라 일컬을

만큼 자의식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온갖 시련이 난무한 현실세계에서는 이를 따라주지 않자 그림으로나마 이 상황을 벗어나려 오히려 화려한 자신의 모습을 마치 환상처럼 표현하였다.

### 3. 방어기제 관점으로 본 프리다 칼로와 천경자 자화상의 자아치유 요인

방어기제는 수많은 화가들에 의해서 미술작품으로 표현되어져 왔고 프리다 칼로와 천경자의 자화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작품 속에서 이러한 표현을 찾아 분석하는 것은 작가의 행위 혹은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미술치료과정의 핵심이 될 수 있다.<sup>12)</sup>

본 연구에서는 두 작가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방어기제인 상징화, 전환, 승화를 중심으로 자화상의 자아치유 요인을 풀어 나갈 것이다. 또한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방어기제의 특성상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방어기제가 동시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세 가지 외 다른 방어기제들은 본문을 통해 따로 언급하겠다.

#### 3-1. 상징화(Symbolization)

융은 상징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그것은 뭔가 막연하고 숨겨진 우리가 모르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이는 상징의 표현 자체가 치료적 효과를 내포할 수 있으며, 진단이 가능하여 정신적 심리상황을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술치료에서는 그림을 그릴 때 자신의 상징들을 자유롭게 나타내는데 이에 동참하는 무의식은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조정해 나가고 이러한 무의식적인 면은 합리적인 사고로서가 아니고 상징적인 상(像)으로 나타난다.<sup>13)</sup>

상징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림을 그리기 전과 그리는 동안에 일어나는 자신의 상상에서 무의식의 소재의 다양한 경험과 그 안에 작용하는 힘과 위력을 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포괄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보게 된다. 이런 것을 통해 각자는 새로운 차원에서 문제를 볼 수 있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그림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불안과 고통, 두려움을 전하는 상징적 메시지이며, 미술치료

9) 송미성, <프리다 칼로의 생애와 자화상 연구>, 군산대 대학원, 2008, p.6

10) Herrera Hayden, 김정아 역, <프리다 칼로>, 민음사, 2003, p.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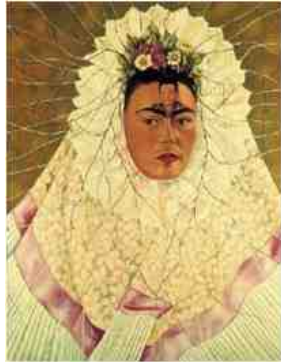
11) 1978년 9월 21일 <조선일보>에 실린 필자의 인터뷰 기사 중에서

12) 유미, <미술작품 속에 보이는 자아방어기제-천경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임상미술치료학회, 대한임상미술치료학회, 20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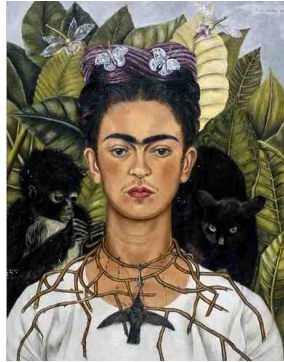
13) 김지애, <프리다 칼로의 삶과 작품에 대한 고찰>, 제주대 교육대학원, 2007, p.49

에 있어 이러한 상징을 읽어내는 것은 치료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상징화는 프리다 칼로와 천경자의 자화상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두 작가는 고통의 단계들을 지나면서 더 자유로운 자아를 표현하고 상징화하기에 이른다. 상징을 만들어 내고 그림이 완성되기까지 억압되고 방어하고자 하는 자아를 만나 불편하고 힘든 심리적 상태를 보이기도 하지만, 그 단계는 자아의 새로운 국면의 발견이고 성숙의 다른 세상의 출발이었다.<sup>14)</sup>



[그림 3] 프리다 칼로  
<내 마음속의 디에고>, 1943, 76×61cm



[그림 4] 프리다 칼로  
<가시 목걸이를 한 자화상>, 1940, 62×47.7cm

<내 마음속의 디에고>[그림 3]에서 프리다는 테후아나 전통의상을 입고 있는데 테후아나는 멕시코 남서쪽의 지명이다. 이 지역은 특히 모계적 전통이 강해 여성들의 역할이 남성을 압도할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프리다의 그림에는 유난히 테후아나 옷을 입은 자화상이 많은데, 그녀가 테후아나를 선호한 이유는 강한 모성에 대한 공감과 남편 디에고가 평소 몹시 좋아하던 의상이었기 때문이다. 이 그림을 그릴 당시 프리다는 디에고와 이혼 후 다시 재결합한 상태로 그에게 잘 보이길 원했고, 사랑에 집착한 나머지 자신의 신체 일부분인 이마에 디에고의 얼굴을 그려놓았다. 자신의 이마에 또 다른 그림을 그려 넣는 이중상(二重像)은 프리다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타인의 가치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내사(introjection)라는 방어기제를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밀착 표현은 칼로의 생활 속에서 디에고를 분리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반영해준다.

프리다의 자화상은 <가시 목걸이를 한 자화상>[그림 4]에서처럼 동물의 이미지를 자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원숭이, 고양이도 나오는데

이는 프리다의 애완동물이기도 하였다. 프리다는 실제로 많은 동물들을 키웠으며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화상과 함께 자주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상징적 표현들은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음에 대한 현실적인 대체물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녀의 다른 자화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형, 사슴 등도 아이에 대한 강박적인 주제들로 다른 작품들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림 5] 천경자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1977, 43.5×36cm

천경자의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그림 5]는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인 꽃, 여인, 뱀이 한 화면에 모두 나오는 대표작으로서 53세(1977년)의 그녀가 22살 때의 결혼생활과 첫 딸을 낳았던 과거의 경험을 슬프고 우울한 기억으

로서 회상하는 작품이다. 20대의 삶의 고통의 상징이자 수호신이었던 뱀이 등장하여 화관이 올라가던 자리를 대체하였고 대신 가슴에 한 송이 붉은 장미가 드리워져 있다.<sup>15)</sup>

천경자는 한의 발생의 모진 악순환을 파격적인 소재를 통해 극복의 의지를 담고 있는데, 참담한 현실에 대한 극복의 의지로 뱀이라는 극단적인 소재를 통해 한의 정서를 살펴볼 수 있다. 그것은 마치 독사처럼 냉혹한 현실에 직면한 개인적 비극이 차원을 넘어서 일제 식민지 시대와 6·25사변이라는 민족 전체의 비극을 극복하려는 몸부림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분출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한의 정서가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인의 한을 구조적으로 따져보면 원한 외에 피해의식이 복합되어 있다. 피해의식은 한에 자학적 의식을 복합시킨다.<sup>16)</sup> 이런 자학적 의식으로서 그녀는 뱀을 선택하여 자신의 머리 위에 올려놓았는지도 모른다.

Burns&Kaufman(1972)은 뱀의 일반적인 상징은 성적 긴장을 나타내는 남성의 상징이라고 한다. 이 시기 그녀의 삶은 작품명에서도 보이듯이 힘든 시기였다. 어렸을 때부터 유복하게 자라고, 여성의 배움이 열악했던 일제 식민지시대에서도 동경유학까지 다녀온 그녀에게 결혼생활의 불행은 다른 누구보다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듯 상반되는 이미지인 꽃과 뱀을 같이 그려 넣어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였다.

14) 정예진, <정신분석적 미술치료관점에서 본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 분석>, 원광대 동서보원의학대학원, 2005, p. 56

15) 이시내, <천경자의 연대기적 회화연구 : 시대적 변화과정과 특성을 중심으로>, 단국대 교육대학원, 2003, p. 29

16)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 문리사, 1977, p.228



[그림 6] 천경자, <황금의 비>, 1982, 34×46cm



[그림 7] 천경자 전시 오프닝

또한 천경자는 <황금의 비>[그림 6]에서처럼 머리에 꽃을 가득 올려놓은 자화상을 많이 그렸는데 이는 보통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 아름다움의 추구, 욕망을 의미한다고 한다. 천경자는 꽃에 대한 애착으로 종종 자신의 개인전에 나올 때 꽃다발을 들거나 [그림 7]에서처럼 머리에 엮고 나오기도 했다. 그녀는 “그림 속의 여자가 꽃을 엮은 것은 한(恨)이 많아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러한 한의 정서는 천경자의 회화전반에 짙게 반영되고 있다. 꽃은 작가에게 있어 삶에 대한 기쁨이요 위로이다.<sup>17)</sup>

한(恨)의 또 다른 표현은 상처라고 할 수 있는데, 천경자는 이러한 한을 여성으로서의 가치관과 아름다움을 주제로 연결시키고 있으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기보다는 안으로 다스려 삭이는 한국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한(恨)이라는 수필집을 낸 그녀는 한의 정서를 삶의 애착과 슬픔을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풀어내어 내면적인 상처의 심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로서 드러내고자 하였다.<sup>18)</sup>

또한 천경자의 꽃에 대한 애착과 상징은 현실적으로 이를 수 없는 소망을 상상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는 방어기체인 백일몽(day dream)을 사용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때로는 치유적인 가치를 지니기도 하지만 영구적 도피처로 삼을 때는 위험에 빠지기 쉽다. 앞서 소개한 프리다의 <내 마음속의 디에고>[그림 3]도 머리위에 꽃 장식을 볼 수 있는데 이 자화상에서도 백일몽의 방어기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프리다와 천경자의 이러한 백일몽은 자의식과 예술의 혼을 지키고 자신의 현실을 화려함으로 극복하려 하는 방어기체였던 것이다.

두 작가 자화상은 대부분 화면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우울하고 어두운 무표정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표정의 표현은 그 인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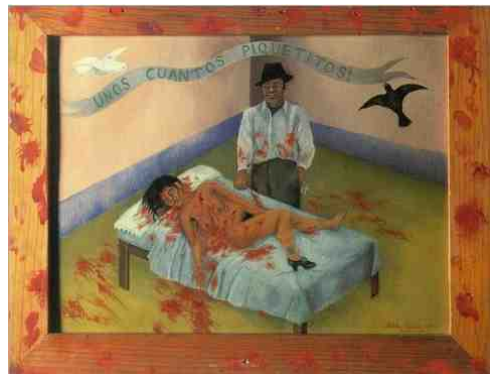
대한 자신의 상징적인 감정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상징의 의미를 점차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반복적인 주요 상징의 표현과 환상으로부터 현실을 구별하는 중요한 능력이 생긴다. 따라서 상징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아가 성숙해짐을 의미하며, 상징화가 일어나는 미술치료과정에서 치료효과를 앞당긴다고 할 수 있다.<sup>19)</sup>

### 3-2. 전환(Conversion) : 정신적 고통을 육체로 표출

프리다 칼로와 천경자는 자신의 불안과 갈등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증상으로 표출되는 전환이라는 방어기체를 자화상에 나타낸 것을 볼 수 있다.

프리다 칼로의 삶을 다루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녀의 남편이자 화가, 혁명가였던 디에고 리베라이다. 디에고는 그녀보다 20살이나 많았을뿐 아니라 많은 여성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러한 남편과의 갈등과 고통을 그림으로 표출하고자 하였고, 프리다 칼로는 자신의 그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나의 그림은 그 안에 고통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나는 내 인생에서 일어났던 여러 끔찍한 일들과 더불어 세 명의 아이마저 잃었다. 그림은 이 모든 불행을 무마시키므로 내게 있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 믿는다.”<sup>20)</sup>



[그림 8] 프리다 칼로, <작은 칼자국 몇 개>, 1935, 29×39.5cm

<작은 칼자국 몇 개>[그림 8]는 프리다 칼로의 여동생 크리스티나와 디에고의 애정관계를 알고, 충격과 배신감, 분노로 빚어진 상처를 표현한 것으로

17) 이윤숙, <천경자의 예술세계 연구>, 호남대 대학원, 2007, p.28

18) 한지원, <천경자의 문학적 측면에서 본 예술세계 연구>, 홍익대 대학원, 2005, p. 42

19) 임인경, <대상관계이론에 비추어 본 미술치료에 관한 고찰>, 상명대 정치경영대학원, 2004, p.78

20) Raquel Tibol, Frida Kahlo : An Open Life. by Elinor Randall, Uni. of New Mexico Press, 1993, p.67



1930년대 말까지 여러 자화상의 주제가 된다. 여기에서 남자는 디에고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림의 액자틀까지 묻은 혈흔은 끔찍함의 강도와 그녀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은 디에고의 외도로 인해 받은 상처를 프리다 역시 많은 연인들을 두어 풀었다는 점이다. 그녀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과도 사귀었는데 이는 디에고의 질투심을 자극하고 그에게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려는 시도이기도 하였다.

이 그림은 직접적인 자화상은 아니지만, 디에고에게 정신적으로 난자당한 자신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간접적인 자화상으로 볼 수 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은 별거와 이혼의 상처로 이어졌다. 여성으로서 아이를 가지지 못한 상처 속에서 남편에게 버림 받은 사실은 그녀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계속되는 우울과 알콜 과다 복용으로 점점 쇠약해져 갔다. 하지만 프리다는 그림 그리는 동안만은 행복했고, 정신적 고통도 잠시나마 있을 수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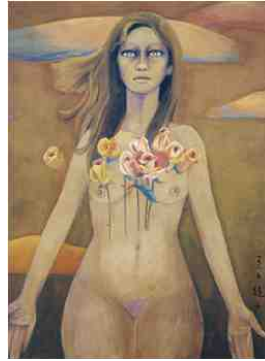
[그림 9] 프리다 칼로, <작은 사슴>, 1946, 22.4×30cm



[그림 10] 프리다의 그라니소와 함께, 1939

<작은 사슴>[그림 9]에서 프리다는 자신을 9개의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는 어린 사슴에 비유한다. 여기에서 사슴은 [그림 10]의 사진처럼 자신이 키우는 애완동물이기도 하다. 자신이 사랑하는 동물을 자신과 동일시(identification)하며 그녀의 정신적 고통을 사슴 신체의 고통으로 전환(conversion)시킨 두 가지 방어기제를 보인 작품이다. 화살을 맞은 작은 사슴의 상처에서는 피가 흐르지만 프리다의 얼굴은 고요하다. 칼로는 이 그림의 왼쪽 아래 사인을 하고 그 옆에 '운명(Carmen)'이라는 글을 새겼다. 여기에서 사슴의 상처는 육체적, 심리적 상처 둘 다를 의미한다. 커다란 수술을 앞두고 있는 프리다에게 이 자화상은 성공적인 수술과 이에 따른 건강의 회복을 비는 마음에서 그려진 것이며, 특히 자신에 대한 사슴이라는 변형은 마치 부적의 일종으로, 전통적인 주술행위처럼 보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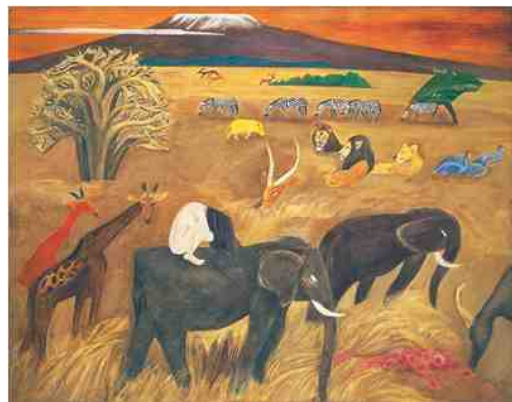
천경자의 <어느 여인의 시2>[그림 11]는 가시가 돌아난 화려한 꽃이 그녀의 가슴에 한(恨)처럼 꽃혀



[그림 11] 천경자, <어느 여인의 시2>, 1985, 60×44.5cm

있는 듯 보인다. 꽃을 사랑한 그녀에게 이러한 표현은 극히 드문 표현으로 아무런 방어막이 없이 팔 벌린 채서 있는 자신의 나약한 나체에 가시 돋은 장미를 표현하였다. 이 작품은 천경자만의 화려한 원색 대비에서 탈피하여 황색이 주조를 이루는 차분하고 가라앉은 색조가 특징이다. 차갑지만 우수에 찬 여인은 작가의 말처럼 자신을 지켜주는 마녀와 같은 존재이자 자신의 분신이다. 하지만 사막처럼 메마르고 텅 빈 외부 공간 속에서 정면을 응시하는 누드의 여인에게서 섬뜩함 보다는 가련함과 슬픔이 느껴진다.

천경자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두 번째 남편을 기다리며 집 앞에서 장미를 들고 혼자 우두커니 밤이슬을 맞곤 했다고 한다. "나는 그에게 장미 같은 애정을 바쳤으나, 많은 가시 같은 걸 그의 가슴에다 찌르거나 앓았나 생각해 본다"<sup>21)</sup>고 하는 그녀의 말이 이 작품을 대변해 주고 있는 듯하다.



[그림 12] 천경자,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 1976, 162×130cm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그림 12]는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그림 5]의 제목과 유사하고 그녀의 자서전 제목과도 같다. 이 작품은 아프리카 여행에서 느낀 광대한 대지와 야생동물 등의 질은 원색과 대자연 앞에서 한없이 나약하고 고독한 자기 자신을 표현하였다. 긴 머리를 아래로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여 팔로 얼굴을 가린 나체의 여인은 대 자연과는 동떨어진 자신의 고통을 몸으로 이야기 해주고 있는 듯하다. 작품 제목에서의 '49페이지'는 그녀의 나이를

21) 천경자, <꽃과 영혼의 화가 천경자>, 랜덤하우스중앙, 2006, p.100

뜻하는데 1976년 52세의 그녀가 자신의 49세를 떠올리며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도 <어느 여인의 시>[그림 11]에서처럼 자신의 모습을 나체로 그렸는데, 오오도모의 인물화 성격 검사에서 이러한 표현은 애정, 물질 결손의 보상 의미를 나타낸다고 한다. 스스로 슬픈 전설로 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그녀의 49세 즈음에는 두 번째 남편인 유부남과 이별하는 고통을 겪었고, 이듬해인 20년간 재직해오던 교수직을 사임하는 등 정신적 공허감이 많이 컸을 시기이다.

코끼리 위에 위태로운 자세로 앉아 있는 모습은 현실에서는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는 듯 보이며, 자신이 만들어 놓은 초현실적인 공간 속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의 상처를 표출하고 정신적 고통을 자신의 몸의 형태로 전환시킨 작품이다.

이렇듯 정신적 고통을 신체로 전환시켜 표현한 작품들을 프리다 칼로와 천경자는 계속 반복하여 그림으로 되새겼다. 이러한 행위는 억압된 것이 강박적으로 반복적 행위를 하면서 저변에 깔려있는 상처를 상징적으로 '치유하고자 하는 행위'로 자아 스스로 이해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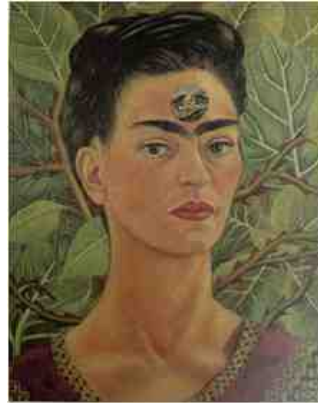
### 3-3. 승화(Sublimation) : 죽음에서 삶으로

승화라는 방어기제는 특히 예술 활동에 있어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 동안 많은 예술가의 예술적 활동이 '승화'라는 이름으로 평가되어왔다.<sup>22)</sup>

프리다 칼로와 천경자는 정신적 고통과 불안한 환경 요인들로 인하여 죽음을 자주 생각했었다. 실제로 프리다는 자살시도를 여러 번 하였고, 그녀의 관련도서에서는 대부분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전해지지만,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병사가 아닌 자살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녀의 마지막 일기에 "이 외출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이라는 내용이 있어 자살에 대한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천경자 역시 여동생의 죽음과 평탄치 않은 두 번의 결혼 생활 등으로 죽음에 대해 생각했었고, 그것을 견디기 위해 그림으로 여러 차례 표현한 바 있다. 이들은 죽음을 마음속으로만 삭이는 것이 아닌, 그림으로 내보이며 죽음에서 삶으로 즉 절망에서 희망으로 승화시키려 노력을 하였다.

프리다의 <죽음에 대한 사색>[그림 13]은 그녀의



[그림 13] 프리다 칼로, <죽음에 대한 사색>, 1943, 44.5×36.3cm  
자신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죽음이 산, 화산, 하늘, 숲의 가운데 있는 하나의 일체화된 형상으로 느낄 수도 있다.<sup>23)</sup>

또한 <내 마음속의 디에고>[그림 3]처럼 이 작품 역시 이중상(二重像)을 이마에 그려 넣음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을 대처하고 수용하는 내사(introjection)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4] 프리다 칼로, <꿈>, 1940, 74×98.5cm

프리다 칼로의 <꿈>[그림 14]이라는 자화상은 하늘에 떠 있는 2층 침대를 그린 것으로 아래 칸에는 그녀가 깊은 잠에 빠져 있고, 2층에는 해골이 폭발물로 연결되어 있다. 디에고 리베라는 해골을 프리다의 연인이자 반쪽이라고 이야기 했다. 평상시에도 해골 모형이 그녀의 침대 한켠에 있었으며, 프리다가 즐겨 그리는 주제였기 때문이다. 하늘 위의 침대, 잠들어 있는 프리다 위로 감싸여 있는 나무, 그녀와 동일시(identification)되어 보이는 해골, 그 위의 폭발물 등 전체적인 그림 분위기가 불안 그 자체이다.

Burns&Kaufman(1972)는 그림에 침대를 그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극히 드문 것인데, 그 상징적 의미는 성적인 것이나 우울증적인 주제와 관련되는 것이

22) 유미, <미술작품 속에 보이는 자아방어기제-천경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임상미술치료학연구, 대한임상미술치료학회, 2007.5, p.6

23) 신혜순, <여성의 모성 원형이론에 의한 프리다 칼로 자화상 해석>, 원광대 대학원, 2008, p.96

라고 한다. 디에고와 이혼 한 프리다는 이 시기 알콜 중독과 우울 증상을 보였다고 한다. 특히 이 시기에 프리다는 자화상을 많이 그렸는데 우울한 자신의 마음을 그림으로 승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림 15] 천경자, <내가 죽은 뒤>, 1952, 43×54cm

천경자의 <내가 죽은 뒤>[그림 15]는 광주 도립병원에서 구한 인골을 직접 보며 그린 작품으로 돈이 없어 폐결핵으로 불쌍하게 죽은 여동생의 극락왕생을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표현되었다. 천경자는 꽃, 나비, 여인 등과 같이 아름다운 것을 줄 곧 그린 반면, 뱀과 인골 등 섬뜩한 것들도 그렸는데, 이렇게라도 그리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고 한다. 죽음을 상징하는 앙상한 뼈와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나비와 신비스러운 핑크빛 꽃을 소재로 선택하여 현실을 딛고 일어서고자 하는 소망이 엿보인다. 죽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힘든 시기에 그린 이 그림은 자신의 감정을 전치시키는 상징화(symbolization)라는 방어기제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자신이 죽은 다음을 생각하며 그린, 당시 그녀의 또 다른 심정과 감성이 나타나 있다.

<자살의 미>[그림 16]는 날카로운 칼날이 꽃힌 믹서기 속에 수선화가 위태롭게 들어가 있는 처절한 작품이다. 여기에서 꽃은 천경자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그녀의 사실적인 얼굴모습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인 꽃을 자신과 동일시(identification)하여 그린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6] 천경자, <자살의 미>, 1968, 137×95.5cm

의인화 된 믹서기의 손이 금방이라도 버튼을 눌러 꽃이 무참히 없앨 것 같은 불안과 긴장감이 돈다. <자살의 미>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꽃과 믹서기 모두 작가를 의미한다.

이 작품은 천경자의 작품에서 보이던 달콤한 환상이나 역동적인 힘은 사라지고 작가가 사용하는 색채가 늘 화려하고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sup>24)</sup> 누구보다 많은 열정을 품었고 또한 그만큼의

좌절과 고통을 안고 살아왔던 그녀에게 자살이라는 의미는 차갑고 잿빛 푸른색으로 그려져 가장 극한 감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천경자는 한(恨)이라는 자신의 수필집에서 자신의 한을 그림으로 승화시킨다고 하였다.

프리다 칼로와 천경자는 삶이 우울하고 힘들었던 만큼 죽음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였고, 그러한 감정들을 그림으로 표현함으로 죽음에서 다시 희망을 찾기도 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작품을 완성하는 동안 구체적인 형상으로 드러나게 되어 그 은밀함이 밖으로 내보여졌다는 것만으로 일종의 쾌감을 얻게 되고, 자기발견을 통하여 치유의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 4. 결론

본 연구는 프리다 칼로와 천경자의 삶을 통하여 작품세계를 이해하고, 자화상에 내재된 자아치유의 요인을 방어기제의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프리다 칼로는 정신적인 고통 외에도 평생 육체적인 고통에도 힘겨워해야만 하였고, 그 속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치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스로 자화상 작업을 선택하였다. 천경자 역시 꽃과 여인들을 통해 자신의 화려함 속에 숨겨져 있는 외로움과 상처를 투사시켜 자신의 모습 속에 담았다.

프리다 칼로와 천경자의 자화상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의상, 동물, 꽃, 뱀 등의 상징(symbolization)적 의미를 자아치유요인에서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자화상에서 자신의 육체를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자신으로 전환(conversion)하여 표현하였으며, 두 작가 모두 삶이 주는 고통에 의하여 죽음의 유혹과 대면하게 되었을 때 죽음을 삶으로 승화(sublimation)시킨 심리적 변화를 자아치유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두 작가에게 있어서 자화상의 의미는 그들 존재의 실체이자 불안의 외침이었다. 그들은 자화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마음 속 깊이 내재하는 사상과 정념을 표현하여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자화상 작업을 통해 자신을 찾았고 그러한 창조적 에너지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자신 내부의 깊은 무의식의 억압된 세계로부터 용감하게 나와서 자신의 고통과 상처를 의식적으로 직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24) 서울시립미술관 개관전 화집, <천경자의 흔>, 도판해설, 2002

최근 미술치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여러 교육 기관에서 전문인 양성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현재에는 발달장애아동이나 심신 장애자들에게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향후 작가들의 창작 과정에서 오는 치유적인 요인 연구들을 통해 미술치료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진다면, 미술치료가 장애인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도 그 영역을 넓히는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자화상의 이러한 자아치유 효과는 자기표현과 성찰을 통한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매체이므로 이를 청소년이나 일반인들 대상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활용한다면 긍정적인 자아관을 형성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지애(2007), <프리다 칼로의 삶과 작품에 대한 고찰>, 제주대 교육대학원, p.42
- 서울시립미술관 개관전 화집(2002), <천경자의 혼>, 도판해설
- 소창애(1997), <자기표현을 위한 자화상 그리기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 송미성(2008), <프리다 칼로의 생애와 자화상 연구>, 군산대 대학원, p.6
- 신혜순(2008), <여성의 모성 원형이론에 의한 프리다 칼로 자화상 해석>, 원광대 대학원, p.96
- 오선미(2008), <성인미술치료의 자화상에 나타난 불균형 조형감각에 관한 연구>, 원광대 대학원, p.20~21
- 유미(2007), <미술작품 속에 보이는 자아방어기제 천경자의 작품을 중심으로>-대한임상미술치료학회지, 2007. 5
- 이규태(1977), <한국인의 의식구조>, 문리사, p.228
- 이시내(2003), <천경자의 연대기적 회화연구 : 시대적 변화과정과 특성을 중심으로>, 단국대 교육대학원, p.29
- 이윤숙(2007), <천경자의 예술세계 연구>, 호남대 대학원, p.28
- 이재훈 외 옮김(2002), <미국 정신분석학회 : 정신분석용어 사전>, 한국심리치료연구소, p. 143~144
- 임인경(2004), <대상관계이론에 비추어 본 미술치료에 관한 고찰>, 상명대 정치경영대학원, p. 78
- 정예진(2005), <정신분석적 미술치료관점에서 본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 분석>, 원광대 동서보완의학대학원, p. 56
- 정중현(2006), <천경자의 환상 여행>, 나무와 숲
- 정재아(2006), <페미니즘적 특성을 이용한 자화상 표현 연구 : 여중생 2학년들을 중심으로>, 국민대 교육대학원, p.25
- 정혜민(2006), <자화상 그리기가 자폐성 아동의 미술적 자기표현 능력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 대학원, p.10
- 조선미(1995), <화가와 자화상>, 서울:예경
- 천경자.(2006), <꽃과 영혼의 화가 천경자>, 랜덤하우스 중앙
- 최윤정(2006), <자화상 중심의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 보건환경대학원, p.10
- 팽은경(2002), <자화상 표현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 p. 20
- 황영옥(2005), <(사랑과 고통을 그린 화가)프리다 칼로>, 이룸
- 한지원(2005), <천경자의 문학적 측면에서 본 예술세계 연구>, 홍익대 대학원, p. 42
- Herrera Hayden, 김정아 옮김(2003), <프리다 칼로>, 민음사, p. 54
- Kettenmann Andrea, 이영주 옮김(2005), <프리다 칼로 : 1907~1954 : 고통과 열정>, 마로니에북스
- Raquel Tibol(1993), <Frida Kahlo : An Open Life.>, trans. by Elinor Randall, Uni. of New Mexico Press, p.67
- Riedel, I.(1992). Malthérapie, Germany : Kreuz Verlag 정여주 옮김(2000), <용의 분석심리학에 기초한 미술치료>, 학지사
- <http://blog.naver.com/iamdala?Redirect=Log&logNo=90004382473>
- <http://blog.naver.com/eh660707?Redirect=Log&logNo=70034941071>